

“배달 오토바이 통행금지”... 안전·생계 놓고 ‘충돌’

광주 곳곳 안전·소음 민원...아파트 단지 통행 제한도 전문가 “단속으로 한계...현실적인 공존 대책 고민을”

광주 곳곳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 안전을 이유로 출입 제한 조치가 이뤄지는가 하면, 도심 상권에서는 보행안전 문제로 단속이 강화되면서 시민들과 배달기사 간 충돌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12일 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지역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공지를 통해 배달 오토바이의 단지 내 진입을 제한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지하주차장 도색 작업으로 차량이 지상에 물리면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졌고, 돌발 상황 위험이

커졌다”며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는 입주민과 배달기사 사이에서 발생한 마찰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해당 아파트에서는 한 여성 입주민이 부모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배달기사와 갈등을 빚었다. 피해 입주민은 “서행 운전을 이유로 배달기사가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고 폭언을 했다”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민원이 관리사무소에 접수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누구의 잘못을 떠나 입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놴다.

하지만 배달 오토바이 출입 제한이 시행되자 이번에는 입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배달 음식을 정문까지 직접 받으러 가야 하는 불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부 주민들은 “모든 배달 오토바이를 위험 요소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생수나 대량 주문처럼 무거운 물품 배송까지 제한될 경우 생활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논란이 확산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결국 배달 오토바이의 단지 내 진입 제한 방안을 철회했다.

비슷한 갈등은 광주 대표 상권인 충장로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충장로에서는 올해 초 배달의민족 즉시배송 서비스 ‘비마트’가 입점한 이후 배달 오토바이 통행량이 급증하면서 소음과 보행 안전 관련 민원이 크게 늘었다.

보행 중심 상권 조성을 위해 오랜 기간 차량 통행을 제한해온 충장로에 하루 수백 대 수준의 배달 오토바이가 오가자 경찰은

최근 단속을 강화했다.

현재 배달기사들은 인근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세운 뒤 도보로 매장까지 이동해 배송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에서는 헬멧을 착용한 라이더들이 음식을 들고 수십 미터를 걸어 이동하는 모습도 반복되고 있다.

단속 이후 배달기사들 사이에서는 “충장로는 아예 콜을 잡지 않는다”, “걸어서 이동하면 시간 손해가 크다”는 반응이 나온다. 반면 일부 시민들과 상인들은 “보행 안전이 우선”이라며 단속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출입 제한이나 단속 강화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배달 플랫폼 확대와 즉시배송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배달 오토바이 이동은 앞

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배달 노동자와 주민, 상권 이용객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현실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주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배달 산업은 이미 도시 생활 인프라의 일부가 됐지만 기존 차량·보행 중심 교통 체계 안에 무리하게 편입되면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며 “배달 전용 동선이나 저속 운행 구역 등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만 강화할 경우 갈등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입주민 안전과 배달 노동자의 생계, 시민 편의가 함께 유지될 수 있는 공존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옛 전남도청서 5·18 기념식 향쟁 심장부 복원 등 상징성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국가기념식이 향쟁의 심장부였던 옛 전남도청에서 열린다.

12일 국가보훈부 등에 따르면 올해 국가기념식 장소가 옛 전남도청 앞으로 정해졌다.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국가기념식 이후에는 복원된 옛 전남도청 개관식도 이어진다. 기념식과 개관식이 같은 날 연이어 열리면서 5·18 역사 현장의 복원 의미를 함께 되새기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5·18 국가기념식이 옛 전남도청 앞에서 개최되는 것은 2020년 40주년 행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동안 기념식은 오월 열사들이 안장된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려왔다.

올해 기념식은 오랜 시간 훼손 논란을 겪었던 5·18 역사 현장이 복원을 거쳐 시민 품으로 돌아왔음을 알리는 의미도 담고 있다. 복원된 옛 전남도청은 앞으로 5·18 최후 항전지이자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기억하는 역사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옛 전남도청은 오월 광주의 아픔과 시민들의 연대 정신이 남아 있는 공간”이라며 “복원을 마친 공간에서 국가기념식이 열리는 만큼 5·18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12일 오후 광주 서구청사에서 열린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에서 공습경보가 발령하자 직원들이 비상계단을 이용해 지하 대피소로 이동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호우특보’ 광주·전남, 피해 신고 잇따라 도로 침수 등 31건 접수... 일부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도

광주·전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다.

1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무안 전남도청 60mm, 목포 58.3mm, 보성 벌교 58mm, 신안 압해도 45mm, 신안 임자도 43.5mm, 장성 상무대 39.5mm, 광주 광산진곡 23mm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시간당 강수량은 보성 벌교 45.5mm, 무안 전남도청 29mm, 신안 압해도 27.5mm 등을 기록하며 강한 비가 집중됐다. 오후 3시 기준 광주·전남 지역에는 900여차례 낙뢰도 발생했다.

비 피해 신고도 잇따랐다. 소방당국에 총 31건(광주 0건·전남 31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모두 비로 인한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7시28분께 영암군 삼호읍에

서는 승용차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져 앞범퍼가 파손됐다.

이어 오전 7시40분께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서는 도로 침수로 차량 통행이 어렵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빗물받이를 막은 흙과 낙엽 등을 제거했다.

기상 악화로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도 통제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마을 간 연결도로 공사에 따른 탐방로 훼손과 안전사고 우려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조도·관매도·도초·우이도 등 10개 구간의 출입을 부분 통제했다. 월출산국립공원 입산도 제한됐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고온다습 날씨에 ‘식중독 경고’ 발령

식약처가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지자 ‘식중독 경고’ 단계를 발령했다. 음식점과 학교 등을 중심으로 개인위생과 식재료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식물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광주·전남 지역 식중독 발생 건수는 총 120건으로, 환자는 2366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4건(195명), 2022년 19건(121명), 2023년 21건(1082명), 2024년 20건(418명), 2025년 26건(469명·잠정)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3월까지 10건(81명)의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발생 장소는 음식점이 84건(1248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 13건(314명), 기타 시설 11건(626명), 학교 외 집단급식소 10건(152명), 불명 2건(26명) 순이었다.

불철 발생 사례도 꾸준했다. 올해를 제외한 최근 5년간 3~5월 식중독 발생 건수는 3월 5건(56명), 4월 4건(311명), 5월 10건(129명)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12~13일 전국에 식중

광주·전남지역 6년간 120건·환자 2366명 발생 음식점·학교 순... ‘손씻기·조리도구 세척 준수율’

독 ‘경고’ 단계를 발령하고, 수산물가공품과 양념육류, 즉석석취식품 등을 이달의 식중독 주의 식품으로 지정했다. 식중독 위험도는 관심·주의·경고·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경고 단계에서는 조리도구를 철저히 세척·소독하고, 식재료의 유통기한과 보관 상태를 확인하는 등 위생관리가 중요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실제 지역에서도 식중독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3일 광주 서구 한 음식점에서는 식사 후 설사와 복통, 오한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당국은 식품과 조리환경 검체 30건을 수거해 검사하고,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여부와 냉장·냉동시설 관리 상태 등을 점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중독은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손 씻기와 적정 보관 온도 유지, 충분한 가열, 조리도구 세척 등 기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건강검진

매일 체크 ✓ 행복 체크

예약 및 문의 062)363-4040

(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광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60415-중-211304호